

Brodifacoum 중독이 있는 개에서 심낭 출혈의 1예

Jin-ho Kang, Jae-hee Lee, In Lee, Gi-jong Lee, and In-sung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Royal Anim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Introduction: 살서제는 vitamin K1 의존성 응고인자(factor II, VII, IX, X)를 감소시켜 응고장애를 유발하며,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한다. 2세대 살서제에는 brodifacoum, bromadiolone, diphacinone, chlorophacinone 등이 있으며, 1세대보다 약효가 지속적이며, 증상이 며칠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병력과 prothrombin time (PT)와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의 지연으로 진단한다. 임상증상은 호흡곤란, 출혈, 채혈시 지혈 지연, 비출혈, 침울, 기면 등이다. 치료는 PT와 aPTT를 검사하면서 vitamin K1을 2~4주간 피하주사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0년령의 암컷 치와와가 갑자기 기침 후 비출혈을 보여 내원하였다. 10일전에도 비출혈이 있어서 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 이후로 경미한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다.

Results: 혈액검사에서 경미한 빈혈과 CK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cardiomegaly와 경미한 흉수가 확인되었다. 심초음파에서 심낭수를 확인하였으며, 심낭수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혈액성 삼출물로 확인되었다. PT가 146초로 정상의 18.5배 증가하였으며, aPTT는 60초로 정상의 3.5배 증가하였다. 응고부전에 의한 심낭 출혈로 진단하였으며, 추가적인 문진에서 10일전 집에 놓아둔 살서제를 환견이 먹었으며, 성분이 brodifacoum으로 2세대 살서제였다. 따라서 2세대 살서제에 의한 응고부전으로 진단하였다. 치료는 vitamin K1 (2~4mg/kg/day)을 피하주사하였으며, 매일 PT와 aPTT를 검사하였다. 또한 심초음파 유도하에 심낭수를 천자하였다. 2주간 vitamin K1을 처치한 후에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1개월까지 PT와 aPTT를 검사하였을 때 정상이었다.

*Corresponding author: jung4545@korea.com